

다산포럼

내 너희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



김정남 언론인

“...1980년 봄, 온 국민이 한결같이 열망하던 민주화의 길에서 우리는, 당시 야당 정치인들로서 하나로 되는 데 실패함으로써 수백, 수천의 민주 국민이 무참히 살상당하는 사태(광주민주화운동)에 이르게 되고, 국민의 수난이 계속됨은 물론 민주화의 길을 더욱 멀게 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국민 앞에 자책과 참회의 뜻에서, 그리고 온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 앞에서 우리 두 사람은 백의종군하는 자세로 하나가 되어 손잡고 우리 민족사의 지상과제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려 합니다.”

이는 1981년 8월 15일, ‘워싱턴에서 김대중, 서울에서 김영삼’의 이름으로 발표된 ‘8·15공동성명’의 일절이다. 그 해 5월 18일에서 6월 9일까지 23일에 걸친 ‘YS(김영삼)의 민주화 단식투쟁’을 당시 미

국에 체류하던 DJ(김대중)가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고,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협력에 이 성명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이 성명이 단초가 되어 그 이듬해 정치인 중심의 민주화추진협의회(민주협)가 결성되었고, 뒤이어 1985년 2·12총선에서 신민당 돌풍을 일으킬 수 있었다.

이 성명은 “민주화 투쟁은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한 투쟁이다”라는 제목에 ‘38번째의 해방을 맞으면서’라는 부제를 달고 있었다. 성명은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 그리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우리 손으로 건설하지 못하는 한,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한 투쟁은 지극히 계속되어야 하고, 또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매우 외람된 얘기지만, 이 성명은 두 분으로부터 지침을 받아 그 초안을 내가 작성했다. 초안을 작성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를 포함시켰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 대목은 다음과 같이 이어지는 구절이다. “민주투쟁 승리의 날에 민주화 투쟁의 과정에서 숨지거나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사람들을,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애국선열의 반열에 올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1970년대와 80년대의 이 나라 민주화 투쟁의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 것이

었음을 잘 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거나, 억압의 사슬에 묶여 헤어 나오지 못하고 끝내 희생되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들은 일제 치하의 애국선열처럼 이 나라 내 조국의 현실을 끌어안고 울고 몸부림치다가 죽었다. 그래서 나는 뒷날 언젠가 민주화가 이룩된다면, 이들을 민족의 해방과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 죽은 애국선열의 반열에 올려놓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이 글을 통해 다짐해 두고 싶었던 것이다.

민주화가 되었다고 하는 오늘, 과연 우리는 그들을 자랑스럽게 애국선열의 반열에 올려놓았는가. 대답은 부정적이다. 우선 일차적으로는 1987년, YS와 DJ가 ‘8·15공동성명’에서 그들 스스로 국민 앞에 한 약속을 배신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성명에서 국민 앞에 하나 되기로 한 약속과 단일화를 갈망하는 범국민적 요구를 배반하고 각자 출마를 서슴지 않았다.

한 사람은 1991년의 3당 합당을 통해, 또 한 사람은 이른바 지역연합이란 것을 통해 5년의 시차를 두고 각각 집권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군부독재 세력의 잔재와 합당한 YS도, 유신분당과 결합한 DJ도 그 도덕성, 그 취약한 권력구조로는 언감생심 민주화 투쟁을 자신 있게 해방

과 독립투쟁의 반열에 올려놓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해방 후 일제 식민잔재 세력과 결탁한 이승만이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하고 해체시킴으로써 우리는 해방된 조국의 이름으로 친일세력들에게 “그때 너희는 어디서 무슨 짓을 했느냐”고 물어보지 못했다. 그것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지 못한 철천지한을 우리 민족에게 남겼다. 또 민주화된 뒤, 반민주 독재의 편에 서서 인권을 유린하고 탄압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도 그 말을 물어보지 못했다. 그리하여 광복 70년, 대한민국은 외형적인 성취에도 불구하고 디테일에 있어서는 불의가 승리하고 기회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다.

옛말에 스스로 업신여긴 연후에 남이나를 업신여긴다는 말이 있다. 누구의 반성과 사죄 표현에 목매기보다는 우리 안의 고백과 참회를 통해 저들을 부끄럽게 함으로써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다. 최근 반민주 행위자(반헌법 행위자)들에 대한 이름표 달아 주기 운동이 일고 있다니,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일제시대의 그것은 ‘친일인명사전’으로 나왔으니 해방 후의 일은 그렇게라도 “그때 너희는 어디서 무슨 짓을 했느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다.

정춘 특·특

대학은 취업의 관문이 아니라 학교다



김민선 동신대 간호학과 2학년

바야흐로 입시철이다. 며칠 전 포털 사이트에서 ‘7월 모의고사’가 검색어 순위 에 오른 것을 보고 적성과 진로 사이에서 고민하던 나의 수험생 시절이 떠올랐다. 고등학생 때 가장 고민되는 경우가 바로 성격과 자신의 계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불일치할 때다. 과거의 나처럼 고민하는 수험생 후배들을 위해, 동신대학교 간호학과에 입학해 첫 수업 때 교수님께 들었던 말씀을 들려주고 싶다.

“여러분은 다양한 이유로 이 자리에 모였다. 이 중에는 적성에 맞아서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바로

적용이다.”

적성과 진로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주고 싶다. 대학교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이 문장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학과 동지들 중에 기초학문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친구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와서 이곳 생활을 처음 하는 친구도 있었다. 혹자는 너무 늦은 것 아니냐며 의문을 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이처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대학교는 학생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며, 더 나아가 적성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곳이기 때문이다.

나는 문과 출신이었기 때문에 생물 실력이 부족했고, 성적이 좋지 않아 대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 뭔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이 필요했다. 그 때 눈에 띄게 대학 블로그 기자단이었다. 블로그 기자가 된 후 학과장님 인터뷰도 하고, 졸업하신 선배님 인터뷰도 하고,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견학 또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간호’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이같은 이해는 학과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로 이어졌다. 나는 동신대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인 ASP(After School Program)를 통해 방과 후에 교수님의 생물 강의를 들으면서 학과 공부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나처럼 학생을 학과에 적응하게 도와주는 경로는 대학 내에 다양하게 존재하며, 학과 외에 개인의 적성을 활용하고 키워주는 경로도 다양하다. 이것이 바로 대학의 존재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요즘 대학교가 학교(學校)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취업을 위해 거쳐야 할 관문 정도로 위상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물론, 대학교가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학교는 학생의 정체성을 찾게 도와주고, 학생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학생들은 ‘학교(學校)’에 다녀야 한다. 나는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과에 적용할 수 있었고, 적성 또한 활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토대로 자아실

현을 할 수 있는 직업 또한 정했다.

오늘날 대학교의 위상 저하는 비단 학교의 잘못 만은 아니다. 학생들도 취업을 위해 배움을 수단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학교는 수단도 아닌 한낱 도구에 그치고 만다. 그러나 배움은 수단이 아니라 학생의 목적이며 본질이 어야 한다.

대학교에 들어온 지 2년이 되었다. 자존감이 없었던 한 여고생은 그동안 전문 지식의 배움과 실습을 통해 성장했다. 단순한 전공의 적용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공과 적성을 접목시킬 수 있게 됐다.

학생이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은 자신의 노력과 함께 대학교가 ‘학교(學校)’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학교와 학생이 서로에게 더 요구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학교는 학생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들의 능력향상을 요구해야 하고, 학생들은 치열하게 공부하며, 학교에게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요구해야 한다. 서로에 대한 이같은 요구들이 결국은 자신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

기 고

대박 예감, 2015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



이유욱 세계대나무박람회 조직위 행사지원부장

관광의 형태가 변하고 있다. ‘힐링’이라는 트렌드는 어느새 우리네 삶에 침투하여 변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 잘먹고 잘살자는 웰빙의 시대에 불어온 ‘힐링’ 바람은 국내외 관광패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9월에 개최되는 담양의 세계대나무박람회 뿐만 아니라 나주에서 개최하는 10월의 세계농업박람회가 그 실례라 할 수 있겠다.

‘담양’이라는 이름의 브랜드 가치는 생

태와 힐링이라는 최근 관광 트렌드와 맞물려 높아지고 담양의 얼굴인 죽녹원은 연간 150만명 이상이 다녀가는 관광 명소가 되었다. 이에 담양은 지역의 대표 부존자원인 대나무의 가치를 세계에 알릴 국제적인 생태도시로 거듭나고자 2015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를 9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45일간 죽녹원 및 도립대 일원에서 개최한다.

2012년부터 세계대나무총회(WBC) 유치 등 꾸준히 국제행사를 준비하여 왔고, 이제 30여일을 남겨놓고 국제관 조성 등 박람회장 시설물에 대한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박람회조직위원회는 8월 31까지 박람회장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9월부터는 시범운영에 들어가 9월 17일에 개장할 계획이다.

대나무는 그 활용이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죽세공예에 한정되던 것이 현재는 기후변화 대책 수중으로서뿐만 아니라 건

축자재, 음식재료, 미용, 의약품, 섬유는 물론 고부가가치 소재로서 신소재산업 및 첨단 바이오산업까지 그 활용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나무 고장인 담양군에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미래 대나무 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조직위원회는 지난해 세계대나무협회(WBO)와 손을 맞잡고 박람회와 연계한 세계 대나무 산업과 아디더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40개국에서 370점의 작품이 접수되어 엄정한 심사를 거쳐 9점을 선정하고 박람회기간에 시상할 계획이다. 경연대회에 쏟아진 대나무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은 무한한 가능성을 엿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올해 대나무제품 전시를 점수를 시작한 국제관에는 현재 14개국에서 50여개의 기관 및 기업이 박람회 국제관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 왔다. 국내에서

대 박람회에 대한 관심 또한 뜨거워 박람회 입장권 사전 판매량이 현재 목표량 54만장을 초과하여 달성하고 있다. 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에 나타나고 있는 국내외적인 관심은 ‘생태도시 담양’을 기치로 달려 나가는 담양군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결국 주민 소득과 연계되리라 생각 한다.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는 세계 각국의 대나무 문화 및 관련 산업기술의 교류 장을 형성하여 이론적으로는 세계대나무총회(WBC)가 학술적으로 뒷받침하고 실제적으로는 대나무 산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담양의 지역적 브랜드 가치 향상과 농업의 다차 산업화와 관광산업 발전으로 이번 박람회가 추구하는 “대숲에서 찾은 녹색 미래”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5담양 세계대나무박람회는 그야말로 대박의 예감이 든다.

社 說

금호타이어 파업 지역경제 악영향 우려 된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어제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이미 부분파업 기간 80억 원의 매출 손실이 있었고, 전면파업의 경우 매일 약 52억 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결국 파업 강행으로 인해 금호타이어가 위크아웃 이후 또다시 경영 위기상황에 봉착하는 것은 아닌지 지역경제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임금피크제 도입’이다. 사 측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일시금 300만 원 지급과 이에 연동한 정년 61세 연장 등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올해 임금피크제 도입은 별개의 문제로 추후 논의 임정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임금피크제 도입 갈등이 전면파업의 도화선이 된 셈이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일정 연령(피크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제도다.

노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부가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임금피크제를 안하면 청년고용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내용이 상당수 국민에게 공감대를 얻고 있다.

반면 임금피크제 효과가 제한적인 것이라는 노동계 주장도 만만찮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를 거부하고 수세적으로 대응할 경우 자칫 노조가 청년실업의 주범처럼 비치는 형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최근 ‘한국경제 9월 위기설’이 파다하게 도는 등 기업환경은 백책간두(百尺竿頭)에서 서 있다. 하물며 지난해 위크아웃을 졸업한 금호타이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이 같은 상황을 직시하지 못한 채 계속되는 파업은 자칫 노사 공멸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노사 모두 협상과 양보를 통해 이번 파업을 하루빨리 끝내야 할 것이다.

광복 70주년 아직도 홀대받는 독립유공자

광주·전남 지역 독립유공자 훈·포장 중 64개가 잠자고 있다고 한다. 올해 광복 70년이 됐지만 이 지역 전체 유공자 424명 중 64명이 훈·포장을 아직도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유는 간단하다. 훈장을 받아 보관할 후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후손을 찾지 못한 것은 유공자들 대부분이 당시 감시의 눈을 피해 가명으로 활동한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에 대한 예우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생존 독립유공자 및 후손들을 조사한 결과, 그 가족들의 75.2%가 월 개인 소득이 200만 원 미만으로 대를 이어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비해 친일행위자 후손들은 평평거리며 사는 경우가 많다.

옛그제 일본대사관 앞에서 분신자살을 기도한 독립운동가 후손 최현열 씨

의 유서에도 그런 내용이 보인다. ‘철천만 동포에게 고향’이란 제목의 글에서 최 씨는 “나라는 찾았어도 친일파 민족반역자들과 일제에 동조했던 부유층들은 낮짱 쫓겨 평평거리며 다니고 독립유공자들의 자손들은 거리를 헤매고 있다”고 분노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목숨을 버렸던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 70주년 경축사와 여아의 논평에서도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 국민과 그리고 국가는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에 대해 엄청난 빚을 지고 있음을 새겨야 한다. 마침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강제로 빼앗아 간 독립유공자의 땅이나 재산을 돌려주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니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다.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을 예우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無 等 鼓

한여름 동쪽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삼각형을 이룬 밝은 별 3개가 눈에 띈다. 이를 ‘여름철 대삼각형’이라고 부르는데 백조자리의 ‘데네브’(Deneb)와 거문고 자리의 ‘베가’(Vega), 독수리 자리의 ‘알타이르’(Altair)이다.

이 가운데 베가와 알타이르는 동양에서 ‘직녀성’(織女星)과 ‘견우성’(牽牛星)으로 불린다. 옛 사람들은 밤하늘에 가득한 별과 별들을 연결해 많은 신화와 이야기를 만들어 냈다.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던 두 청춘이 칠월칠석(음력 7월 7일)에 오작교(烏鵲橋)를 건너 해후(邂逅)하는 ‘견우 직녀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실제로 밤하늘을 보면 두 별 사이에 흐르는 은하수는 마치 연인을 갈라놓은 큰강물처럼 보인다.

영동하지만 가끔 두 별이 일 년에 한 번씩 만나나는 질문을 받고 있다. 하지만 베가(직녀)는 지구에서 26.5광년, 알타이르(견우)는 16.5광년 거리에 있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이들이 만나는 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다.

통일부가 남한 이산가족 6만여 명의 현황을 다음달 중순까지 파악해 복구에 앞장 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칠월칠석

이산의 역사이기도 하다. 한국전쟁 이후 남북의 긴장감은 오늘날까지도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까치와 까마귀가 다리를 놓듯 이산가족의 만남을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는 없을까. 이산가족의 염원이 풀릴 수 있는 ‘오작교’가 하루빨리 열릴지 기대한다.

“...가슴을 딛고 건너가 다시 만나야 할 우리/ 갈날 위라도 딛고 건너가 만나야 할 우리/ 이별은 이별은 끝나야 한다/ 말라붙은 은하수 눈물로 녹이고/ 가슴과 가슴을 노도록 놓아/ 슬픔은 슬픔은 끝나야 한다. 연인아.” (문병관 ‘직녀에게’ 중에서) /송기동 사회2부장 song@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96	다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정 치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조 사 부 2200-571	조 사 부 2200-57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